

| 해양문화 |



미슐레의 『바다』: 극미동물의 찬가

| 유재홍 | 전남대학교
eejay4@jnu.ac.kr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역사가로서의 미슐레
3. 『바다』: 생명 또는 극미동물의 찬가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쥘 미슐레(Jules Michelet, 1798-1874)의 『바다』는 어떤 장르에 귀속될 수 없는 모호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 바다를 어떤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과학적) 설명이나 (문학적) 수식은 무모하며,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의 영역에 대한 도전인지도 모른다.¹⁾ ‘바다’는 자신을 규정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무마시키는 불가사의한 존재일까? 분명 바다의 실존적 모습이 있다. 바다는 지구 표면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육지로 둘러싸인 거대한 소금물이다. 그곳은 지구상에 최초로 생명이

1) 미슐레 자신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1845년에 나는 『민중』을 쓸 준비를 하면서, 노르망디 연안의 주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15년간, 이 방대하고 힘든 주제는 더욱 넓어지기만 했다. 나는 이 해변, 저 해변을 찾아다녔다.” 쥘 미슐레, 『바다』, 정진국 옮김, 새물결, 2010, p.366.

탄생한 곳이며, 플랑크톤, 해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 갑각류 등과 같은 많은 생명체가 그곳에 서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바다』가 바다와 관련된 물리학, 화학, 지질학, 생물학 등과 해수의 움직임, 해양-대기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물리해양학에 관한 다수의 과학적 정보를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박물학적 문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작품은 자연과학으로서의 해양학(oceanography)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바다』를 허먼 멜빌이나 조지프 콘래드의 소설들이 대표하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적인 이야기로 규정할 수도 없다. 『바다』에는 생명의 기원과 그 충실감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가득하다. 전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과학과 생명을 찬미하는 시성(詩性)의 결합은 이 작품으로 하여금 독특한 위상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르트는 미술레가 “대상마다 새로운 과학”, 또는 “보편학이 아닌 단일학 (Mathesis singularis et non plus universalis)²⁾을 저술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술레는 무엇보다도 ‘프랑스사’를 확립한 역사가이다. 그는 자신이 저술한 프랑스사를 ‘민족(국민) 소설’(roman national)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표명은 엄격성을 요하는 역사가에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그의 역사가 지향하는 바를 선명하게 일깨우는 매력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나는 민중으로 태어났으며, 가슴 속에 민중을 품고 있다”라는 그의 고백에서 그것이 더욱더 부각된다. 1848년 2월 혁명은 그가 역사를 추동하는 힘으로 믿었던 민중을 영웅으로 만든다. 그러나 혁명은 곧바로 반혁명적인 세력에 의해 무효화에 되며 그는 통한의 시기를 보내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자연사에 관한 저작

2)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가 주창했던 ‘mathesis universalis’는 수학에 입각한 가상적인 보편학이다. 두 철학자는 이성에 의해 전적으로 설명 가능한 보편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mathesis universalis를 고전주의적 합리주의의 근간으로 삼으려 했다. 롤랑바르트, 『미술레』, 한석현 옮김, 옮긴이 후기, p.301.

들 —『새』(1856), 『곤충』(1857), 『바다』(1861), 『산』(1868)—이 출간된다. 이 저작들은 역사를 대체하는 자연과학연감이 아니다. 우리가 이 글에서 몇몇 부분을 조명할 『바다』에서 바다는 서정적 인격체로 등장하며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묘사된다. 물론 이 작품에는 거시적인 자연현상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다룬 프랑스의 자연사를 창안한 뷔퐁(Buffon)의 정신이 녹아들어 있다. 그러나 미슐레의 자연사는 민중을 주역으로 하는 역사를 잊지 않는다. 『바다』에는 인간의 의식세계를 흔들며, 망각된 기억이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시성이 있다. 이 시성은 바다의 미천한 존재들 --극미동물--의 목소리, 생명, 불멸성, 연대를 묘사할 때 최고조에 도달한다.

2. 역사가로서의 미슐레

(1) ‘프랑스사’의 정립

미슐레는 프랑스 역사의 토대를 구축하고 확립한 역사가이다. 그는 ‘국립고문서보관원’(Archives nationales de France)의 역사분과 책임자, 파리대학 교수,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를 거치면서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 민중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현대적 의미에서 프랑스사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프랑스사』—“중세사”(6권, 1833-1844), “혁명사”(7권, 1847-1853), “근대사”(7권, 1857-1867), “서문” 완간본(1869), “19세기사”(3권, 1872~1874)—의 저술에 소진했다고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의 태동에 공헌했다고 한다면, 미슐레는 민중에 기초한 프랑스인의 의미를 구체화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사 서설』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자:

1830년 7월 혁명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이 혁명은 영웅과 고유 명사가 없는 첫 번째 유형의 혁명이었다. 사람들은 승리 후에 영웅을 찾았다. 그리고 이 영웅이 모든 민중임을 알게 되었다.³⁾

미슐레는 대변혁의 소용돌이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역사가의 삶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을 듯하다. 그가 인쇄공의 아들로 태어난 시기는 혁명이라는 대격변기였다. 이 시기는 훗날 토크빌(Tocqueville)이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라 명명했던, 절대왕정이 몰락한 시기이다. 18세 후반부터 시작된 프랑스 사회체제의 변화는 19세기를 관통하면서 겹잡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체제의 부침으로 이어진다: 프랑스대혁명(1789-1804: 국민의회, 입헌국회, 국민공회, 총재정부,통령정부),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제1제정(1804-1814), 루이 18세와 샤를 10세의 왕정복고 시대(1815-1830), 1830년 7월 민중 봉기 후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입각한 루이 필리프 1세의 왕정시대, 1848년 2월 혁명 이후 제 2공화정(루이 나폴레옹), 1852년에 시작된 제2제정, 1870년에 일어난 보불전쟁의 패배 이후 나폴레옹 3세의 축출, 1871년 파리 코뮌 이후 제3공화국의 수립 등.

(2) 미슐레와 랑케, 아날학파(École des Annales)

‘국립고문서보관원’은 프랑스대혁명을 주도했던 입헌국회의 칙령으로 1790년에 창립된다. 미슐레는 이 기관의 역사 분과의 책임자로 1830년에 임명된다. 고문서는 역사적으로 입증 가능한 가치를 지닌 분

3) J. Michelet, Introduction à l'histoire universelle: "Ce que la révolution de juillet a de particulier, c'est de présenter le premier modèle d'une révolution sans héros, sans nom propre; (...) Après on a cherché le héros; et on a trouvé tout un peuple.", t. II, Éditions Saint-Clair, 1960, p.99.

야에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 보존된 기록물들이다. 고문서는 사본이 존재하는 책이나 잡지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출판되지 않으며 거의 늘 고유성을 지닌다. 프랑스의 진정한 모습을 밝힐 고문서보관원의 책임자라는 경험은 역사가로서의 그의 사명감과, 특히 사료의 중요성에 바탕을 둔, 그의 역사 서술방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아카이브에 기초한 역사가로서 미슐레의 위상은 동시대를 살았던 랑케(Ranke, 1795~1886)의 그것에 비해 그늘에 가려져 있다. 랑케는 엄밀한 사료 비판에 기초를 둔 근대 사학을 확립한 역사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원래의 역사적 자료에 충실하면서 사료의 개념을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랑케는 “있었던 그대로”(wie es eigentlich gewesen)의 서술 원칙을 고집한다. 엄격한 사료 비판과 사실(원사료)에의 충실성에 비롯된 그의 객관주의는 역사학의 독자적인 연구 시각을 이끌어내어 근대 역사학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그것이 랑케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

역사가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만 해야 한다. 물론 미슐레도 이러한 랑케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역사의 역할이 그것에만 한정될 수 없다. 그는 훗날 문명사라고 불리는 “총체적 역사”⁴⁾를 꿈꾸는 사람이다. 그의 역사 서술은 민중에 기초를 두면서, 동시에 경제변화, 인구증가, 진보사상의 보급, 종교 운동 등을 망라한 세계의 거대한 움직임의 포착에 주안점을 둔다. 여기에서 미슐레가 자신의 역사 서술의 전제로 삼는 민중의 성격 규명이 요구된다. 그것은 ‘누가 역사의 주체인가’라는 질문과 결부된다. 역사의 동력이 존재할 것이다. 이 동력은 개인의 차원으로 국한될 수 없다. 그렇다고 그것이 헤겔이 말하는 것처럼

4) Cf. Paule Petitier, 「Michelet hors frontières」, Montpellier의 Rablais 센터 콘퍼런스(2017년 3월 1일), www.youtube.com/watch?v=oLrCW7aaQ1s.

럼 추상적인 세계정신일 수도 없다. 역사를 추동하는 힘은 집단적인 것과 관계한다. 그것이 미술레의 역사 서술 모형에서 한 사회의 기층을 구성하는 인민, 다중, 그리고 이들이 형성하는 여론 등이 중요한 자리를 점하는 이유이다.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기류 중에 하나는 민중, 여자, 마녀 등과 같이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 다중(多衆)에의 성찰이자 오마주이다. 예를 들면 『마녀』에서는 감금과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졌던 마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부활되며, 『프랑스사』에서 잔 다르크는 무고한 마녀의 절대적 상징으로 기술된다.

미술레가 말하는 민중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가 의미하는 민중은 노동 계급의 해방, 노동력의 조직, 계급투쟁, 사회주의 혁명 등과 무관하다. 그것은 세 가지의 관점, 이를테면 민족적·정치적·사회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⁵⁾ 먼저 그가 뜻하는 민중은 헤르더(Herder)에서 연유된 '민족정신'(Volksggeist)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미술레에게는 환경, 종족, 언어, 민속, 전통 등의 공유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의 민족주의는 계몽주의 범세계주의에 이르고자 하는 프랑스의 보편주의적인 사명감과 일치한다. 그는 『민중』에서 민중이란 민족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연대감의 주체임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혁명의 요람이었던 프랑스를 하나의 종교로 규정한다. 또한 민중은 주권의 유일한 담지자로서 시민들의 총체에 의한 정치적 조직체이다. 물론 그는 열렬한 민주·공화주의자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중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 압제받는 하층민, 여자, 어린이들이다. 이 이름의 대중은 역사의 짐을 감내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불굴의 본능은 역사를 추동하며 중국에는 국가를 자유로 인도한다.

5) Cf. Alain Pons, 「De la nature commune des nations au Peuple romantique. Note sur Vico et Michelet」, *Romantisme*, 1975, n°9. p.43.

민중을 토대로 한 총체적 역사의 서술, 이러한 역사 서술 방법은 일견 역사적 자료와 사료에의 충실성을 뛰어 넘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객관성이 결여된 태도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텐느(Taine)도 이 점을 부각시키면서 과학과 예술이 뒤섞인 그의 역사는 매혹적이거나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미술레의 역사는 “프랑스의 서정적인 서사시”일 뿐이다. 그렇지만 역사의 힘, 주체를 집단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미술레의 발상은 20세기 아날학파(L'École des Annales)에 의한 역사학의 혁신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아날학파는 개인(권력자, 영웅 등)과 정치에 기초한 연대기적 기술이 아닌, 전체 사회, 집단, 구조적 설명을 역사 인식의 골격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블로크(Bloch)와 르페브르(Le Febvre)는 「사회경제사 연보」(Annales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를 매개로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과학을 재구조화된 과학적 역사로 통합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이론을 전개시킨다. 아날학파의 제2세대를 대표하는 브로델(Braudel)은 사회과학과 역사학의 결합을 꾀한다. 그가 1949년에 출간하는 『지중해』⁶⁾는 아날학파의 역사관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지중해 세계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장기간(la longue durée)의 지리적인 삶, 이 삶과 연동하는 사회·경제적인 삶, 그리고 지리적인 삶과 사회·경제적인 삶의 표면에서 생성되는 거품 같은 정치적인 삶 등을 구조적이며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아날학파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어쩌면 미술레가 꿈꿨던 총체적 역사가 여기에서 완성되는지 모른다.

6) 페르낭 브로델,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1』, 주경철, 조준희 옮김, 까치, 2017.

3. 『바다』: 생명 또는 극미동물의 찬가

(1) 역사에서 자연사로

무엇이 역사가인 미슐레로 하여금 자연사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를 갖게 했을까? 1848년 2월 파리에서 발생한 민중운동에 의해 1830년의 7월 혁명으로 수립됐던 루이 필리프의 왕정이 붕괴되고, 남성 보통 선거제를 도입해 헌법제정의회를 조직함으로써 제2공화정이 실현된다. 미슐레는 극도로 흥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인 민중의 등극을 알렸던 환희의 순간은 짧았다.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곧바로 민중 봉기가 낳은 제2공화정을 폐기하고 황제에게 전권을 귀속되는 제2제정을 탄생시킨다. 미슐레는 개인사적으로도 극도의 어려움에 봉착한다. 그는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1848년에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직이 정지되고 루이 보나파르트가 대통령에서 황제로 즉위한 시기에 파직 당한다. 1852년에는 황제에게 선서를 거부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애착했던 고문서보관원의 책임자 직위를 박탈당한다. 또한 유년기부터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은 또 다른 죽음의 경험으로 강화된다. 두 번째 결혼에서 만난 충실한 조력자, 아테네 미아라레(Athénais Mialaret)와의 사이에서 탄생한 두 아이의 연속된 죽음은 그를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한다. 미슐레에게는 하나의 출구, 정신적·육체적 재생의 시도가 절실했다.⁷⁾ 자연사에 관한 그의 첫 번째 작품인 『새』에서 그는 중요한 고백을 한다.

7) Cf. Lionel Gossman, 「Michelet and Natural History: The Alibi of Nature」, i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145, No. 3 (Sep., 2001),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pp.283-333.

하나의 혁명—언제가 그것에 대해 상술할 것이다—이 나의 내부에서 일어났다. 나는 쇠진한 육신으로부터 온 힘을 다해 1846년에 출간된 『민중』에서 내가 언급했던 신국(神國)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했다. 신국에는 천한 사람, 우둔한 사람, 농민, 일꾼, 무지한 자, 문맹인, 야만인, 미개인, 심지어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아이들조차도 고유의 권리와 규범, 시민의 향연에서의 좌석권을 가지고 있다. “신국이 여전히 배제하여 누군가가 뒤에 남게 되어, 그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항변할 것이다. 나는 문턱에 머무른 채 결코 신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⁸⁾

이렇듯 그는 역사에서 자연사로서의 이동을 하나의 혁명으로 간주한다. 사실 그것은 관심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역사(정치) 속에 자연의 피조물을 통합시키는 다소 급격한 시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과 자연의 생명체는 동일한 자격을 얻는 것일까?

이처럼 자연사는 나에게 정치학의 한 분야로 보이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가 자신의 소박한 권리와 함께 민주주의의 안식처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왜 우월한 형제들이 만물의 시조(始祖)가 세계의 법 안에 화합시킨 생명체들을 법 밖으로 폐밀어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나의 혁신이었다. 뒤늦게 시작한 이 새로운 삶은 나를 조금씩 자연사로 이끌었다.⁹⁾

자연사를 정치학의 한 분야로 취급하겠다는 미슐레의 발상에서 우리는 그의 작품이 자연에 대한 특성, 분포, 변화, 발달 등의 기술에 제한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그가 뒤늦게 발견한 자연사는 당

8) Jules Michelet, L'oiseau, FB Editions, 2015, p.23.

9) 같은 책, p.23.

시에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박물학 또는 박물지로 번역되는 자연사는 지질학, 생물학, 지리학, 고고인류학을 모체로 하여 종합과학의 성격을 띤 분야로 성장하고 있었다. 미슐레는 이 분야를 대표했던 훔볼트의 『코스모스』와, 특히 앞선 세기의 뷔퐁의 『일반특수자연사』를 잘 알고 있었다. 학문의 분화가 세밀하게 완성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거시적으로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당시의 자연사 연구가 학문적 엄격성이 결여돼 있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자연사는 비단 자연에 대한 재인식에 대한 공헌뿐만 아니라 당시 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과학 사유의 준거가 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례로 마르크스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발전을 ‘자연사적 과정’으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사적 과정은 의식을 가진 인간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 필연적이고 합법칙적이며 객관적인 과정이다.

(2) 『바다』: 극미동물의 찬가

『바다』는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의 기원”, “바다의 정복”, “바다의 르네상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바다의 기원”은 일종의 과학적 사실주의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진동, 파동과 꿈틀거림 속에 원시생명체의 탄생과 그 진화를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바다는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를 내는 거대한 신체이며, 바다의 소리는 거대한 공명을 울리면서 인간의 내면과 맞닿는다. 확실히 미슐레는 박물학자나 또는 자연주의자로 머물지 않는다. 서정적 인격체로 묘사되고 있는 그의 바다는 인간과 함께하는 바다이다. 그것은 목소리, 생명, 불멸성, 연대의 담지자이다.

육지는 말이 없지만 대양은 말한다. 대양에는 목소리가 있다. (...) 생물이 나오는 젖의 바다, 바다의 비옥한 젤리는 생명으로 태어나가도 전에 이미 함께 뒤섞인 한 덩어리로서 흰 거품을 일으키며 말한다. 이것이 대양의 큰 목소리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할까? '생명'을 말한다. 영원한 변신을, 떠도는 존재를. (...) 무슨 말을 한다고? '불멸성'이다. (...) 무슨 말을 한다고? '연대'다.¹⁰⁾

바다를 인간과의 '연대'의 대상으로 삼는 그의 시각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바다의 기원"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바다』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적충류(赤蟲類)와 미세한 계, 번쩍거리는 말미잘, 백설 같은 자패류(紫貝類), 금빛 원구류(圓口類), 물결무늬의 고둥, 발광체인 극미동물(animalcules)"¹¹⁾ 등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이 미미한 생명체들에 대한 서정적인 주석을 끊임없이 전개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진화론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정통하고 있었다. 명백하게 『바다』에는 생명의 형성과 그 진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많은 묘사가 있다. 그렇다고 그가 라마르크나 다윈처럼 진화론적 입장에서 작은 것에서 큰 것,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변화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사실 그는 진화론자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생틸레르(Saint-Hilaire)의 생명체의 변신에 대단히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맨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 이 미소동물에 대한 찬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에서 '목소리', '생명', '불멸성'의 주체였던 민중이 자연사에서는 극미동물로 치환되는 것일까?

민족에 있어서도, 지질학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열린 아래쪽에 있

10) 『바다』, pp.359-360.

11) 같은 책, p.101.

다. 내려가 보라, 열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낮은 층에서 열은 타오르고 있다.¹²⁾

① 젖의 바다(Mer de lait): 점액(Mucus)

미슐레는 『바다』의 주해에서 새로운 화학이 바다의 미끄러운 수분 분비물인 점액(mucus)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 밝히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¹³⁾ 생명의 원천으로서 바다의 과학적인 의문이 풀린 셈이다. “바다는 지구의 거대한 압컷이다. 지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영원한 수태로 새끼를 낳는다. 절대로 끝이란 없다.”¹⁴⁾ 진부한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은 바로 그러한 과학적 발견에 의존하고 있다. 바닷물은 미세한 입자의 산란에 의해서 청색 빛을 띠는 단순히 물의 큰 집합체가 아니다. “두껍고, 기름지며 끈적끈적” 점액으로서의 바닷물은 미슐레가 역사 서술에서 즐겨 표현했던 혈액과 등치관계를 이룬다. 미슐레의 ‘역사적인’ 상상력에 의하면 피는 역사의 중심 물질이다. 그는 프랑스대 혁명을 로베스피에르의 인공적인 피, 테르미도르 여자들의 피 등을 예시하면서 서술하곤 했다. 그가 13세기의 나병, 14세기의 흑사병, 16세기의 매독, 19세기의 자궁 궤양 등으로 광기나 부패 쪽으로 휩쓸리는 무규칙적이고 변질된 역사의 부침을 설명할 때는 미친 피, 달힌 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자연사로 눈을 돌릴 때, 바르트가 지적하고 있듯이, 피의 최상의 형태는 바다가 된다.¹⁵⁾ 바다는 맑고 투명한 물의 공간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항상 고여 있으며 모래 섞인 기만하는 물”¹⁶⁾도 아니다.

12) 켈, 미슐레, 『민중』, 전기호 옮김, 울성사, 1979. p.131.

13) 『바다』, p.366.

14) 같은 책, p.103.

15) 『미슐레』, p.157.

태초에 해저에서 수많은 화산들이 오늘날보다 더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갈라진 틈과 그 사이 골짜기에서 바다의 점액이 자리를 차지하며 쌓이고, 물의 흐름으로 전기를 띠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서 젤라틴이 발생하고 굳어지고 단하고 살아 움직이면서 모든 젊은 힘을 부양했다.¹⁷⁾

미슐레에 의한 바다(=점액)와 생명의 등식은 놀랍게도 오늘날 과학이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 러시아의 생물학자 오파린(Oparin)의 가설, 즉 유기화합물이 여러 변화를 거쳐 원시생물이 탄생한다는 주장과 매우 유사하다. 물론 미슐레가 구체적으로 무기물의 구성에서 화학적 진화를 통해 생명의 씨앗인 유기물의 탄생이나, 또는 DNA, 대사기능, 세포막으로 구성된 세포의 존재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② 원자: 윤충류(Rotifère)

이처럼 점액으로서의 바닷물은 생명체들의 산실이다. 미슐레는 생텔레르의 연구를 빌려 생명의 첫 번째 시기에 바다의 젓, 젤라틴은 “유기체의 첫 단계로서 동물화 하는 물질”이며 모든 동식물은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 물질을 흡수하고 생산한다고 단언한다. 바다는 자양분이 풍부한 식물성 점액성의 농축이며 녹조류, 미세한 해초, 식물성 동물, 동물성 식물 등과 관련한다. 그는 지질학자 프레시네(Freycinet)가 관찰한 6천만 제곱미터의 해조류에서 1제곱미터 당 4천만 마리가 살 수 있는 작은 생명을 언급하고 있고, 킹맨(Kingman) 선장의 증언을 통해 “희고 얼룩덜룩한 넓은 별판 같은 해역”에 펼쳐있

16) 미슐레가 러시아제국을 빗대어 사용한 표현.

17) 『바다』, p.113.

는 밝은 바다와 대조되는 납빛 하늘과 같은 젤라틴의 존재를 서술하고 있다.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니, 그것은 살아 꿈틀대면서 이상한 빛을 발하는 극미동물이었다는 것이다. 린네는 동물계를 6개의 강(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연충류)으로 나눴다. 이는 18세기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9세기에 퀴비에(Cuvier)의 치밀한 연구를 통해 “척추동물, 연체동물, 관절동물, 방사대칭동물”의 4분법의 동물 분류가 확정된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극미동물인 방사대칭동물의 발견은 미슐레에게 과학적 사실을 뛰어넘어 생명의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전율로 다가온다. 미슐레는 개인적으로 파스퇴르와 관점을 달리했던 생물학자 푸셰(Pouchet)의 작업은 물론이고, 유럽 각국의 동물학자들, 예컨대 슈바머르담(Swammerdam), 에렌베르크(Ehrenberg), 윌리엄 하비(Harvey), 밀르 에드워드(Milne Edwards), 드 카트르파주(de Quatrefage) 등의 연구물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게다가 죽은 섬게, 불가사리와 거미불가사리의 젤라틴 성분의 박피에서 작은 티끌을 떼어내어 그 자신이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하기도 한다. 그가 발견한 것은 “통통하고, 작달막하며, 힘차고 악착같은 소용돌이”가 생명에 취해 있는 “기묘한 바쿠스의 축제”¹⁸⁾이다. 그가 관찰했던 유행동물을 『생명과학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몸은 1000개 전후의 세포로 이루어지고 몸길이 0.1~2mm이다. 구상 또는 원통모양이며 머리, 몸통, 꼬리(발)의 3부로 구분된 체절구조가 없다. 체표의 큐티클은 몸통부에서 가장 두텁고 피갑으로 되며, 머리와 꼬리(발)를 몸통 속에 끌어넣을 수 있다. 두부에 섬모가 윤생 또는 열생한 윤반이 있어 이동하여 포식기능을 갖는다.¹⁹⁾

18) 『바다』, p.117.

그의 과학적이고 서정적인 상상력은 유행동물의 몸에 부착된, 열을 지어 늘어선 섬모들의 움직임에서 자연과 생명의 본질을 읽는다. 생명 현상에 대한 경외감의 뿌리를 발견한 것일까? 미슐레의 입에서 “아 유행류, 유행류여!”라는 공경과 두려움의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자연의 힘찬 시초이다. 이런 물질의 조화에서, 그 무엇이 이토록 장엄하게 창조에 나서겠는가! 최초의 숭고한 연주를 알리는 활 놀림이다. 크기가 어떻든, 이것들은 이미 동물계에서 최상위로 분류되는 큰 동물들이 먼 훗날 갖게 될 커다란 소화력과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 “아 유행류, 유행류여!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 이렇게 감각과 기관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이런 수수께끼 속에서, 삶의 불안한 문턱에서, 생식은 생명을 내놓으며 우리가 타고 올라온 가시계의 문을 연다.²⁰⁾

③ 피의 꽃(Fleur de sang): 산호

다윈은 “육지의 초원이나 숲은 바다에 비하면 황량하고 텅 빈 사막처럼 보인다”²¹⁾ 라고 경탄했다. 미슐레는 다윈을 닮는다.

지구의 심장에서, 화산이 부글대는 밑바닥과 뜨거운 물이 흐르는 곳에서 바다는 창조의 균형이 맞추기 어려울 만큼 생명으로 넘친다. 그 바다는 식물의 삶을 능가한다. 단번의 잉태만으로도 동물의 삶으로 나아간다. 그렇지만 이 동물들은 기이하게 화려한 식물과 어리둥절할 만큼 찬란한 꽃의 외양으로 치장한다. 꽃과 초목과 덩불이 끝없이 펼쳐진다.²²⁾

19) Cf. 『생명과학대사전』, 도서출판 여초, 2008.

20) 『바다』, pp.124-125.

21) 같은 책, p.126.

22) 같은 책, p.127.

다윈은 1831년 12월부터 1836년 10월까지 영국의 해군 측량선 비글호를 타고 남아메리카·태평양·인도양·남아프리카 방면을 항해하면서 여러 동식물을 탐구했다. 그가 만났던 해저의 숲 중에 산호초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는 1842년 이 분야에서 최초로 「산호초의 확산과 그 구조」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다. 다윈은 산호초를 세 종류(거초, 보초, 환초)로 구분했다. 거초는 섬의 둘레 얇은 곳에 퍼져 붙어 있는 것, 보초는 연안과 평행하게 놓여있지만 육지와는 멀리 떨어진 채 육지를 에워싸고 넓게 퍼져 있는 것, 환초는 섬이 가라앉고 그 둘레에 남아 있는 것을 지칭한다. 다윈에게 거대한 숲의 표상으로 보였던 산호초는 미슐레에게는 피의 꽃이 된다. 피는 역동성의 상징, 곧 생명이다. 연산호, 건드리면 바로 움츠리는 코르널레르(cornulaire), 푸른 성상체, 관산호, 눈송이처럼 교묘하게 뭉친 해면종, 심연을 장식하는 뇌산호, 질푸른 카리오필(cariophylles) 등에서 그는 “떨릴 만큼 매혹적이며”, 꿈속에서처럼 어지러움을 느낀다. 산호초는 “반짝이는 신기루”이며, 그 속에서 요정 같은 물은 흩어지는 프리즘으로 경이로운 색채의 움직임을 선보인다.

얼마나 우아하고 모호한 매력을 흘리며 요동치는지! 동물계와 식물계의 경계에서, 환상적인 선경(仙境)처럼 떠도는 모습 속에서, 우선 정령이 깨어난다. 그것은 여명이자 오로라이다. 정령은 자개와 칠보의 영롱한 빛으로 지난밤의 꿈과 다가올 낮에 꿈을 생각을 전한다.²³⁾

④ 순회하는 물질: 백악(白堊)

물고기는 산호를 삼키고는 그것을 백악으로 빚어낸다. 산호의 바다

23) 『바다』, p.127.

는 “그 배태와 들썩임과 운동으로 끝없이 짓고 허물고, 증감하고 다시 세우는 공사를 펼치는 가운데 거대한 석회암을 생산한다.”²⁴⁾ 그러므로 미슐레에게 모든 것은 생명이다.

우리는 역사와 자연사 각각에 질문을 던지며 조사에 착수했다. 너는 누구냐? - “나는 생명이다.” 과학 앞에서 죽음은 덧없이 도망친다. 이성이 항상 승리하며 죽음을 물리친다.²⁵⁾

“모든 것이 살아있거나, 살아있었다. 과거든 현재든 모든 것이 생명이다”²⁶⁾라고 라마르크는 말한다. 미슐레는 라마르크를 박물관의 호메로스로 명명하며 그가 무척추동물을 창안하고 분류한 천재적 본능의 소유자라고 소개한다. 라마르크는 『동물철학』에서 동물분류학·생명론·감각론과 함께 진화사상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는 무기물에서 자연 발생한 미소한 원시적 생물이 그 구조에 따라 저절로 발달하여 복잡하게 된다는 전진적 발달설과 습성에 의해 획득된 형질이 유전함으로써 발달한다는 이론을 함께 전개시켰다. 그는 전자로는 큰 동물 부류들이 단계적으로 배열됨을 설명하고 후자로는 종의 다양성을 설명하려고 했다. 미슐레는 라마르크의 설명을 통해 거친 석회 덩어리가 생명의 흔적, 더 나아가 생명 그 자체임을 알게 됐다고 고백한다. 그는 “동물과 땅이 모두 서로를 위해 창조의 제물”²⁷⁾되는 창조 행위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

동물성은 어디에나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것에 퍼진다.

24) 같은 책, p.141.

25) 같은 책, p.140.

26) 같은 책, p.139.

27) 같은 책, p.140.

대리석 설화석고처럼 극히 파괴적인 불의 도가니를 거친 광물에서도 그 자취와 잔재가 있다. 광학렌즈로 적층류를 알아보게 되던 날부터 우리는 그것이 산을 만들고 대양을 누비는 것을 보았다. 구조토로 뭉쳐진 단단한 규석은 거대한 극미동물군이고, 해면은 살아있는 규석이다. 프랑스의 석회암도 동물이다. 파리 시는 적층류 위에 서 있다. 독일 일부는 오늘날 파묻힌 산호초 바다 위에 있다. 적층류, 산호류, 조개류, 이런 것이 석회암이고 백악이다.²⁸⁾

미슐레는 “창조의 순환 고리”²⁹⁾를 발견한다. 미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당황색의 부드러운 탄산석회가 되고, 그 위에 인간의 도시가 세워져 있다. 석회와 백악이 빚어낸 파리, 파리 시가 적층류 위에 서 있다는 발상은 파격적이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설의 관점이 생물학과 지질학에 도입된 듯하며, 또한 그의 친구였던 르루(Leroux)와 레이노(Raynaud)가 관심을 가졌던 윤회설의 재림한 듯하다. 물론 이때의 윤회는 물질의 재순환을 의미한다.

⑤ 바다의 딸(Fille de la mer): 해파리

미슐레는 해파리에 바다의 딸이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그는 에렌베르크, 레송(Lesson), 뒤자르댕(Dujardin) 등에 의한 이 분야의 연구를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영국의 동물학자 포브스(William Forbes)의 『자연사 연감』과 그의 논문 「해파리」에 정통했다. 하지만 미슐레는 그것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을 넘어 자신에게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한다. 강장동물인 해파리는 “이렇다 할 보증도 받지 못하고 운에 맡겨진 한갓 미물”임이 분명하나, 부유생활에 적응한 이 피조

28) 『바다』, p.139.

29) 같은 책, p.145.

물은 이미 “고등 생물”이다. 그는 유리처럼 무채색에 조금 단단하고 건드리면 금세 몸을 떠는 “젤라틴화된 물”로서의 해파리에서 고유의 자립성과 개별성을 지닌 존재를 본다.

이렇게 흐릿하고 우아한 모습에서, 무방비인데도 태평하고 나약한 모습에서 그것을 알아 볼 수 있다. 항해 수단도 없이 생명을 과신하며 바다로 나간다. 이는 새로운 영혼의 맨 처음이자 감동스런 출현이요 탈피다. 아직 방어할 줄도 모르면서 안전한 공동생활을 벗어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기를 쓰면서, 자기 생각에 고민하고 움직이는 —자유로운 본능의 말랑말랑한 과도기이자— 자유의 짝이다.³⁰⁾

이처럼 거대한 플랑크톤인 해파리는 원시적인 유기체가 아닌, 자유를 찾아 자기 자신이 되려 하는 존재의 숭고성을 지닌 생명체이다. 미슐레는 『민중』에서 혈벗은 시골 아이에게도 동일한 관찰을 했었다.

거의 알몸과 같은 상태로 나무신도 신지 않고 검은 빵조각만을 먹으며, 소나 거위의 당변을 하고 있는 시골의 아이는 대자연 밑에서 살고 그리고 논다. 조금씩 농업의 일을 심부름하지만, 그것이 그를 씩씩하게 해줄 뿐이다. (...) 자! 이제야 씩씩해진 너희는 무엇으로 고생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인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³¹⁾

⑥ 섬계(Piqueur de pierres)

이처럼 『바다』의 해양학은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나 그 현상의 서술에 머물지 않고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향한다. 섬계의 경우도

30) 같은 책, p.154.

31) 『민중』, pp.73-79.

예외가 아니다. 미술레는 자기증식능력을 지닌 섬계의 삶에의 의지를 부각시킨다.

섬계는 파고든다. 그것이 그의 삶이다. 부분을 갈라 다섯 개의 돌기로 항상 밀면서, 다시 서로 붙여 뾰족한 곡괭이를 만들어 뚫는다. 이렇게 멋진, 이빨 다섯 개짜리 칠보 곡괭이는 40개의 부속으로 구성되어 단단하지만 아무튼, 가느다란 뼈대에 걸려 있다. 이것들은 일종의 집 속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완벽하게 작동된다. 이런 탄력으로 거친 충격을 피한다. 더구나 사고에서 살아나면 재생된다.³²⁾

극피동물인 섬계는 골판이 촘촘히 늘어선 껍데기로 둘러싸이고 그 위에 움직일 수 있는 가시가 있다. 가시에는 감각기능이 있다. 이처럼 미술레는 “빈약한 덩어리, 가시 돋친 밤 껍질”, “발은 없고 사지 대신 뾰족한 가시”를 지닌 미물에서 한 세상을 끌어안는 위대한 조화의 정신을 포착한다. 섬계는 미술레에게 그 자신이 경외감으로 감탄해 마지 않았던 신비스러운 방사대칭동물의 완결물이 된다.

섬계는 원형 및 방사상 생물의 완결물이다. 섬계에서 그 형태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최고의 단계까지 발전했다. 그 원형에서 거의 변함이 없다. 절대적 형태다. 둥근 섬계는 그토록 단순하고도 복잡한 형태로, 일차적 세계를 마무리하는 완성도에 근접한다. 그 세계의 아름다움은 이중적 형태들의 조화, 그 균형과 왕복 운동의 우아함이다.³³⁾

32) 『바다』, p.166.

33) 같은 책, p.169.

4. 나가는 말

미술레의 자연사를 대표하는 『바다』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바다의 기원”은 생명을 예찬하는 서정적인 주석이다. 그것은 과학과 시성이 한데 어우러진, 소박한 존재들의 본능적인 권리에 대한 찬가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사되는 역사와 자연의 뜻밖의 결합에서 미술레가 추구하는 하나의 인간학을 엿볼 수 있었다. 그의 역사관에 따르면 역명의 민중은 역사의 무거운 짐을 감내해야 하지만, 이들이 지닌 불굴의 본능은 역사를 추동하며 중국에는 국가를 자유로 인도한다. 『바다』에서 민중—천한 사람, 우둔한 사람, 농민, 일꾼, 무지한 자, 문맹인, 야만인, 미개인 등—은 극미동물로 치환된다. “적층류와 미세한 게, 번쩍거리는 말미잘, 백설 같은 자패류, 금빛 원구류, 물결무늬의 고둥, 발광체인 극미동물” 또한 목소리, 생명, 불멸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이 미물들은 물질대사, 피자극성, 성장, 생식, 적응, 진화 등의 속성을 지닌 자립성과 개체성의 존재들이다. 민중이 사회적 계층의 가장 밑바닥에서 사회변화나 역사진행의 진정한 동인이 되듯이, 극미동물로 가득 찬 바다의 점액이나 백악은 생명의 원천이며 인간 삶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미술레의 바다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과 함께하는 바다이다. 『바다』는 희원을 품은 다짐으로 결말을 짓는다.

서구의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자.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 공동의 행복을 구해보자. 땅은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내놓는다. 바다는 우리를 고양하는 데 최상의 것을 준다. 우리를 잃는다면 바다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의 수호자이자 그 창조적 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 바다도 살고, 우리가 죽으면 바다도 죽으리라.³⁴⁾

34) 같은 책, p.364.

〈참고문헌〉

1) 미슐레 작품

- 쥘 미슐레, 『바다』, 정진국 옮김, 새물결, 2010.
- 쥘 미슐레, 『민중』, 전기호 옮김, 울성사, 1979.
- _____, 『여자의 사랑』, 정진국 옮김, 글향아리, 2009.
- _____, 『마녀』, 정진국 옮김, 봄아필, 2012.
- J. Michelet, La mer, FB Editions, Nabu Press, 2010.
- _____, Le Peuple, Nabu Press 2010.
- _____, Introduction à l'histoire universelle, t. II, Éditions Saint-Clair, 1960.
- _____, L'oiseau, FB Editions, 2015.

2) 기타 문헌

- 강영희 외, 『생명과학대사전』, 도서출판 여초, 2008.
- 롤랑 바르트, 『미슐레』, 한석현 역, 이모선북스, 2010.
- Paule Petitier, 「Michelet hors frontières」, www.youtube.com/watch?v=oLrCW7aaQ1s.
- Lionel Gossman, 「Michelet and Natural History: The Alibi of Natur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145, No. 3 (Sep., 2001),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 Alain Pons, 「De la nature commune des nations au Peuple romantique. Note sur Vico et Michelet」, Romantisme, 1975, No. 9.